



“조각은 힘 아닌 끈기로 하는 것 누가 봐도 ‘좋다’는 느낌 들어야”

광주시 동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갤러리에서 11월11일까지 열리는 ‘원로작가 9인 특별전’에 참여한 한국예술원 회원 전뢰진 작가가 작품 ‘재롱’ 앞에서 예술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처음 작품 선보이는 예술원 회원 전뢰진 조각가

“조각은 어떤 사람이 봐도 ‘좋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 자신부터 조각을 좋아해야 해요. 평생 하고 싶는데도 작품 활동을 하다보니 사람들이 상도 주고 예술원 회원도 되고 그러더군요.”

지난 11일 광주 세계조각·장식박물관에서 만난 한국 조각계 거장 전뢰진(87) 작가는 겸손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박물관 내에 최근 조성된 ‘박물관 갤러리’에서 11월11일까지 열리는 ‘원로작가 9인 특별전’에 참여했다. 정운태 명예관장이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전 작가를 특별 초대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전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전 작가는 “서울에서 광주 작가들과 함께 단체전을 연 적은 있지만 광주에서 전시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남부대 정운태조각공원 등을 기뻐하는데 광주가 왜 문화도시로 불리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방문소감을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재롱’(높이 47cm), ‘소녀상’(높이 20cm)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리석 소재 작품 2점을 선보인다. ‘재롱’은 엄마곰이 아기곰 팔을 번쩍 들고 있는 모양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했다. 전 작가는 쪼고 다듬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해 다른 것보다 제작기간이 2~3배 더 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상’은 네모난 돌에 소녀 얼굴이 새겨져 있다. ‘반대편으로 돌려보라’는 말에 작품을 한바퀴 돌려보니 뒷편에도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었다.

“평론가들은 ‘돌에 온기를 담았다’, ‘가족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제 성격대로 작품이 나올 뿐입니다. 화강석보다는 다루기 쉬운 대리석으로, 큰 작품보다는 소규모 조각을 주로 작업했어요.”

“작품 잘 만들 생각 없어 좋아하는 일 즐길 뿐”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원로작가 9인 특별전 참여



‘소녀상’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다. 월북작가 이쾌대 선생이 운영하던 성북회화연구소에서는 ‘물방울 작가’ 김창렬 등과 함께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서울대 미술학부 도안과에 입학했지만 6·25가 터지며 학업을 중단했다. 서울 수복 후 학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학적부가 모두 없어졌다며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던 중 흥익대 미술학부장으로 있던 전뢰진 조각가 윤호중 선생을 만나게 되고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을 제작했던 장성 출신 김영중과도 같이 공부했다. “윤 선생 아들 가정교사를 하면서 흥익대 조각과에 편입했죠. 같은 서울대 출신 김영중 선생은 얼굴만 알았지 잘 모르던 사이였어요. 편입 면접을 볼 때 심사위원들이 김영중 선생을 아느냐고 물어 보더군요. 모른다고 하면 불합격될 것 같

아서 냉큼 잘 안다고 대답했어요.” 27살이였을 때 어느날 미국 백악관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다. ‘전뢰진이 몇살이나, 결혼은 했느냐’ 등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미술협회 전람회에 출품했던 대리석 조각을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전 작가는 유명세를 탔다.

전 작가는 가느다란 팔뚝을 보여주며 “조각은 힘 이 아니라 끈기로 하는 것이다”며 “작품을 잘 만들어야겠다” ‘깊은 메시지를 담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는 작품을 만드다 보니 여러 운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광주는 각 미술대학에 조소학과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후배 조각가들도 힘들겠지만 조각을 즐기다 보면 좋은 날이 찾아 올 것입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수).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062)222-0072

춤사위로 풀어낸 ‘평화 아리랑’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U(우)리랑’ 공연...17~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역동적인 몸짓으로 풀어낸 ‘아리랑’은 어떤 모습일까.

2016 아리랑브랜드공연은 아리랑과 광주정신을 담아낸 지역의 작품을 발굴, 브랜드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타악그룹 ‘인수화풍’, 내뽀소리민족예술단 ‘아리랑을 찾아서’ 등의 ‘고향’이 관객들을 만났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지막 작품인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U(우)리랑’이 오는 17~1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작품 제목 ‘U(우)리랑’의 ‘U’는 YOU

의 ‘U’,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모양 ‘U’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또 민주·평화의 가치를 꿈꿨던 광주의 포용력과 아리랑 고개를 ‘우리 함께 넘어가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작품은 평화의 땅에 소식을 전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아리랑 새벽의 아침’, ‘신작로-비오는 아리랑’, ‘사랑을 찾습니다-멈춰버린 아리랑’, ‘흔든-아리랑 환상’, ‘아리랑 무등대 고가자!’ 등 총 5막으로 구성돼 있다.

작품은 역동적인 춤사위와 함께 현대적 느낌의 무대 장치, 미디어 아트(영상

우려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안무는 임지형 조선대 교수가 맡았으며 대본은 최영화씨가 썼다. 연출의 조주현, 음악의 김철환씨 등이 함께 힘을 보탤다. 흥동리·선유라·여차현·김현재·김유진·김선민·김진아씨 등 30여명의 무용수가 출연한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지금까지 전국무용제에서 3차례 대통령상을 수상한 팀으로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여왔다.

무료 공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문의 062-670-79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리리연’ 창작뮤지컬 공연

‘바다에 꽃이...’ 16일까지 씨어터 연바람

창단 후 ‘백작속의 아이’, ‘알마의 죽음극’ 등을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연극 그룹 ‘공연장작소 아리리연’(이하 ‘아리리연’)이 이번엔 창작뮤지컬을 공연한다. ‘아리리연’은 오는 16일까지(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8시, 일요일 3시) 광주 동구 씨어터 연바람 ‘바다에 꽃이 피다’를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아름답고 찬란했던 학장 시절을 배경으로 그 시절에 함께 나눴던 고민과 순수했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구나 한번쯤 겪어온 이야기들이다.

한 아이가 등교하는 길. 음악을, 연극을,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시간 속에서 꿈을 꾸고 고민을 나눈다. 또 서로에게 위로받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한다. 장래희망, 연애, 가족, 취미 선생님 등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아이들은 각자의 아름다운 희망과 꿈을 품고 저마다의 여행을 떠난다.

극단 대표 황민형씨가 연출을, 이영주·임주신씨가 음악을 맡았으며 안무 감독 한중진, 무대 디자이너 이현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임성재, 이연우, 정현호, 손다희, 최호주, 정낙일, 최오담, 강정은이 출연한다.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blog.naver.com/arariyeon. 문의 010-8208-05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가곡, 깊어가는 가을

오늘 우리가곡부르기 10월 행사

아름다운 가곡으로 더욱 깊어가는 가을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10월 행사가 14일 오후 7시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에서 열린다.

‘가을의 기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김현승 시인의 시에 김영중 작곡가가 멜로디를 부친 ‘가을의 기도’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연주도 눈길을 끈다. 장흥식, 이현경, 박상위, 황선제, 최광신, 최해훈, 유옥순, 김유진, 서해란, 남신, 이대영씨가 ‘강 건너 봄이 오듯’, ‘동심초’, ‘한 송이 흰 백합화’, ‘그리운 순천만’, ‘남의 노래’, ‘그대 창밖에서’ 등을 부른다. 그밖에 꿈나무 연주 무대로 김혜운(호덕초 4학년)이 출연하며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가 ‘기다리는 마음’을 들려준다.

또 우리가곡부르기 여성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꿈오라기 중창단’이 박원자 시인의 ‘호숫가에서’와 ‘하늘빛 너의 향기’를 연주하며 김다희씨를 초청, 우리민요 ‘배 띄워라’를 듣는 시간도 마련한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산들바람’, ‘그대 창 밖에서’, ‘사랑하는 마음’ 등이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음료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http://cafe.daum.net/gjkrong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062-600-71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구요? 20년은 가는데!!!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이름!! 더블저축은행